

작업치료(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에 관한 연구

김진경, 강대혁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작업치료(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임상실습에 대한 교육과정 구성과 실습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 2003년 8월 전국대학작업치료 교수협의회에 참석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총 45명중 32명 참석)를 대상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 32부 중 총 26부를 가지고 각 응답에 대한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 교육 분야의 실습지도에 있어서 우선 임상실습기관선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학교가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교육 및 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4%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임상실습기관과 대학과의 연계성을 묻는 항목에서 협동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는 임상실습기관의 무관심(40%), 교수의 노력부족과 무관심(18%)때문이었다. 임상실습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임상실습기관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가 32%를 차지하였고, 임상실습에서 통일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학생평가양식(41%)과 실습기록지(38%), 기준성적(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적절한 호칭으로는 ~선생(54%), ~실습학생(4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대학과 임상실습기관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과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 평가 방법, 현장실습비용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통일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임상실습 지침서가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교수, 임상실습, 임상실습 지침서, 작업치료교육

I. 서론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 일은 작업치료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우선시 되는 과제이다. 작업치료사 교육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임상실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임상실습은 치료사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치료 현장에 나아가 치료사로서 자기의 적성과 능력을 재확인하고, 자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새롭게 하고, 치료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첫 출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김혜숙, 2002). 학생과 치료사라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실습생들은 치료사의 자세와 역할, 학습자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박미정, 1999).

학생들은 작업치료 전반에 걸친 학교교육을 토대로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위하여 실습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진로 결정을 위해 실습에 임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실습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실습 목적과 목표에 적합한 실습내용과 그것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실습 지도·감독의 내용과 질은 학생들의 실습 만족도와 성취도를 높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박용현, 1988).

이와 같이 임상실습은 실습생에게 중요한 교육과정이지만 실습을 통해 항상 바람직한 경험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비 작업치료사들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실습시에 만나게 되는 실습지도자와 클라이언트 및 동료실습생 그리고 실습기관과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실습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실습생들은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자신과의 갈등을 느끼고 있으며, 실습에 대한 안내부족 및 실습 준비에 필요한 자료제공 부족 등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조인경, 1992).

임상실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임상실습과정에서 느끼는 실습생의 갈등과 연구는 보다 효율적인 임상실습의 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일이다(허혜경과 양미자, 200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임상실습에 대한 교육과정 구성과 실습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임상실습에 대한 작업치료(학)과의 교수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3년 8월에 실시한 전국 대학작업치료(학)과 교수협의회에 참석한(총 45명 중 32명 참석) 각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총 32부를 배부하여 그 중 26부를 회수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1).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임상실습에 대한 교수의 견해에 관한 질문지이다. 본 설문지는 문헌 고찰 및 예비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 것으로 본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는 성별, 학교의 학제, 임상에서의 임상실습지도 경험, 임상 경험, 교직 경력, 학교인근지역의 임상실습기관 유무 및 기관수로 구성되었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1	42
	여	15	58
학제	3년제	17	65
	4년제	9	35
임상에서의 임상실습지도 경험	유	19	73
	무	7	23
임상경험	1년 이하	0	0
	1~3년	3	10
	3~5년	6	25
	5년 이상	17	65
교직경력	3년 이하	11	42
	3~5년	11	42
	5년 이상	4	16
학교 인근지역(대중교통 1시간 이내)에 임상실습 기관 유무	유	19	79
	무	5	21
인근지역에 있는 임상실습 기관 수	1개	2	11
	2개	6	33
	3개	4	22
	4개 이상	6	33

(2) 임상실습기관의 특성

실습기관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는 임상실습기관의 선정 기준, 준비 및 지원 현황, 임상실습기관에서 실습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나 지도, 임상실습기관의 최소기준, 학교와 기관 사이의 연계성 및 협동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 실습지도치료사에 대한 특성

실습지도치료사(이하 실습지도자라 함)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는 선정 기준, 교육 및

지도, 임상실습지도비,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실습지도자에게 미치는 영향, 실습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4) 임상실습에 대한 교수의 특성

설문지는 임상실습 전의 사전교육 유무, 교수가 생각하는 임상실습이 클라이언트에게 미치는 영향,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흥미도,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개별지도 유무, 임상실습의 평가, 교수가 보는 실습 후 학생들이 얻게 되는 지식에 대한 만족도, 실습 후 개별 상담 유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5) 임상실습을 나가기 위한 필수 과목

설문지는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평가와 과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6) 임상실습에서의 개선 사항

설문지는 임상실습 중 학생이 갖게 되는 큰 불만, 개선사항, 임상실습에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 임상실습기관의 확대, 학생들에게 임상실습시 적절한 호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 분석 방법

회수된 설문은 각 내용에 따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각 응답에 대한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임상실습 기관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기관의 특성을 살펴보면 임상실습기관의 선정에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에 응답자의 57%가 예라고 대답하였다. '임상실습에 대한 준비 및 지원이 충분히 이루고 있는가'에 '보통이다(38%)'가 가장 많았고 '대체로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각각 29%를 나타냈다. '임상실습기관이 치료사에게 임상실습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나 지도를 충실히 하고 있는가'에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36%를 나타냈다. 임상실습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에는 '다양한 작업치료 실'이라고 응답자의 48%가 대답하였다. '학교와 실습기관이 협동이 잘 된다'라는 질문에 54%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46%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였다. 협동이 잘 안 되는 이유에는 '실습기관의 무관심(40%)', '교수의 노력부족과 학교의 무관

심(18%)' 순으로 나타났다(표 2).

2. 실습지도자의 특성

'임상실습 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에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36%를 차지하였다.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교육 및 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보통이다'가 52%, '대체로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각각 22%, '매우 그렇다'가 4%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지도비의 액수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가 28%,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0%, '보통이다'가 18%를 나타냈다.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치료사들에게 새로운 활력이나 자극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가 38%, '그렇지 않다'가 33%를 나타냈다. 실습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에는 임상경험이 50%, 인성이 36%, 학력이 14%를 차지하였다(표 3).

3. 임상실습에 대한 교수의 특성

'임상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모두 그렇다(100%)'고 대답하였다. 실습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가 36%,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32%, '보통이다'가 28%를 차지하였다. 임상실습이 클라이언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체로 그렇다'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도에서는 '대체로 그렇다'가 58%, '매우 그렇다'가 25%, '보통이다'가 17%를 차지하였다. 임상실습기관을 방문하여 개별지도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39%)', '대체로 그렇다(30%)', '대체로 그렇지 않다(26%)',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4%)'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기관에서 학생들의 실습점수에 대해서 46%가 대체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실습점수를 성적에 대체로 반영한다고 응답하였고(61%), 실습점수가 낮은 학생에 대해서는 69%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며 47%가 추후

개별 상담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얻는 지식 및 기술습득 정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가 50%, ‘보통이다’가 42%,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8%를 차지하였다(표 4).

표 2. 임상실습기관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교에서 임상실습기관의 선정에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	13	57
	아니오	10	43
실습에 대한 준비 및 지원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그렇다	0	0
	대체로 그렇다	7	29
	보통이다	9	38
	대체로 그렇지 않다	7	29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임상실습기관이 치료사에게 임상실습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나 지도를 충실히 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0	0
	대체로 그렇다	6	24
	보통이다	7	28
	대체로 그렇지 않다	9	36
임상실습기관이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최소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	3	12
	작업치료사 수	10	30
	다양한 작업치료실	16	48
	병상수	3	9
	다양한 치료실	4	12
학교와 실습기관 사이에 협동이 잘된다고 생각된다	기타	0	0
	예	13	54
학교와 실습기관 사이에 협동이 잘 안 된다면 이유는?	아니오	11	46
	잘되고 있다	6	27
	실습기관의 무관심	9	40
	교수노력 부족 및 학교의 무관심	4	18
	학생들의 무관심과 현장 실습에 대한 두려움	1	5
	학생들과의 대화 부족	2	9

표 3. 실습지도자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실습지도자의 선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그렇다	0	0
	대체로 그렇다	6	21
	보통이다	7	15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	36
	전혀 그렇지 않다	5	18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교육 및 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그렇다	1	4
	대체로 그렇다	5	22
	보통이다	12	52
	대체로 그렇지 않다	5	22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실습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임상실습지도비 액수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0	0
	대체로 그렇다	7	28
	보통이다	12	48
	대체로 그렇지 않다	5	20
	전혀 그렇지 않다	1	4
실습기관의 치료사들에게 실습이 새로운 활력이나 자극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2	8
	대체로 그렇다	9	38
	보통이다	5	21
	대체로 그렇지 않다	8	33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실습지도자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최소 기준은?	학력	5	14
	임상경력	18	50
	연령	0	0
	인성	13	36
	기타	0	0

표 4. 임상실습에 대한 교수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임상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킨다.	예	24	100
	아니오	0	0
임상실습기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기간이다.	매우 그렇다	1	4
	대체로 그렇다	8	38
	보통이다	7	28
	대체로 그렇지 않다	9	36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임상실습이 실습기관의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1	4
	대체로 그렇다	12	50
	보통이다	7	29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17
	전혀 그렇지 않다	0	0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흥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6	25
	대체로 그렇다	14	58
	보통이다	4	17
	대체로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임상실습 기간에 방문하여 실습과정을 지켜보고 개인별로 지도해 준다.	매우 그렇다	0	0
	대체로 그렇다	7	30
	보통이다	9	39
	대체로 그렇지 않다	6	26
	전혀 그렇지 않다	1	4
임상실습 점수를 성적에 반영한다.	매우 그렇다	8	35
	대체로 그렇다	14	61
	보통이다	1	4
	대체로 그렇지 않다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표 4. 임상실습에 대한 교수의 특성(계속)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임상실습기관에서 실습 학생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매우 그렇다	8	33
	대체로 그렇다	11	46
	보통이다	3	19
	대체로 그렇지 않다	1	4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임상실습점수가 낮은 학생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게으른 것 같다	0	0
	기본적인 실력이 없다	3	12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4	16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1	4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다	17	69
실습점수가 낮은 학생에 대해 추후 개별상담을 한다	매우 그렇다	6	27
	대체로 그렇다	10	45
	보통이다	2	9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18
	전혀 그렇지 않다	0	0
실습을 통한 학생들의 지식 및 기술 습득 정도는 어떠한가?	매우 만족한다	0	0
	대체로 만족한다	12	50
	보통이다	10	42
	대체로 만족하지 못 한다	2	8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0	0

4. 임상실습에서 필요한 필수 과목

임상실습 전에 필요한 평가에 대해서는 손기능에 대한 평가(28%), 도수근력검사(25%), 일상생활 동작 평가(20%), 관절가동범위 평가(18%), 인지 평가(14%), 감각통합검사(8%)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으로는 작업치료평가도구가 27%를 차지하였다(표 5).

5. 임상실습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

실습 중 학생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불만은 '임상실습기관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32%), '거리가 멀다'(21%),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18%), '리포트가 너무 많다'(14%), '개인적 일을 시키는 것과 실습량이 너무 많다'(7%)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임상실습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64%로 가장 높았다. 임상실습에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평가양식

표 5. 임상실습에서 필요한 필수 과목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임상실습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평가도구는?	관절가동범위평가	12	18
	도수근력평가	16	25
	일상생활동작 평가	13	20
	손기능 평가	10	28
	인지 평가	9	14
	감각통합검사	5	8
임상실습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은?	이학적 검사	11	15
	작업치료평가도구	20	27
	일상생활동작	11	15
	정신과 작업치료	11	15
	아동 작업치료	9	12
	신체장애 작업치료	6	8
	운동 치료학	5	7
	노인 작업치료	0	0
	감각통합치료	0	0

이 41%, 임상실습기록지가 38%를 차지하였다. 임상실습기관이 확대된다면 보내고 싶은 기관에는 작업평가실이 45%로 가장 높았다. 학생에게 적절한 호칭으로는 ~선생(54%), ~학생(42%), 작업치료사 예비 선생(4%)순으로 나타났다(표 6).

IV. 고 찰

작업치료(학)과의 임상실습에 대한 문제점 및 평가를 통한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에 관한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작업치료(학)의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는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본 연구에 의한 결과들이 임상실습에 시사하는 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임상실습기관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작업치료 교육 분야의 실습지도에 있어서 우선 임상실습기관 선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학교가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습기관으로서의 자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교육 및 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가 24% 만을 나타내 아직까지 실습에 대한 기관의 인식 부족과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임상실습기관과 대학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협동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는 임상실습기관의 무관심(40%), 교수의 노력부족

표 6. 임상실습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임상실습 중 학생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불만은?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	5	18
	임상실습기간이 짧다	0	0
	실습량이 너무 많다	2	7
	실습기관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	9	32
	리포트가 많다	4	14
	개인적인 일을 시킨다	2	7
	집과 실습기관의 거리가 멀다	6	21
임상실습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실습 지도 치료사에 대한 충분한 보수	2	8
	충분한 임상실습 시간 배분	2	8
	임상실습생에 대한 인격적 대우	4	20
	다양한 임상실습 프로그램	16	64
임상실습에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임상실습 기록지	11	38
	학생 평가 양식	12	41
	복장	0	0
	언어 사용	1	3
	기준 성적	5	17
	학생인원 수	0	0
	기타	0	0
임상실습 기관이 확대된다면 보내고 싶은 기관은?	직업평가실	14	45
	정신과 작업치료실	8	26
	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13
	개인 발달 연구소	2	6
	보건소	3	10
	기타	0	0
임상실습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호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름 부르기	0	0
	실습 학생	10	42
	~선생	13	54
	작업치료사 예비 선생	1	4
	~씨	0	0
	기타	0	0

과 무관심(18%)때문이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심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습지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실습지도자의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36%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습기관에서의 실습지도자의 교육 및 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가 52%를 차지하였다. 실습지도자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최소 기준으로는 임상경험이 50%, 인성이 36%를 차지하였다. 현재 작업치료 실습지도는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치료실에서의 과도한 업무량과 그 역할의 모호성으로 체계적인 실습지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실습을 대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서 볼 때 단독으로 실습현장에서 지도를 제공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학 교육 과정 내의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기관과의 상호 협조를 중시한 구체적인 실습지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실습기간이 실습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가에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38%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기관의 실정을 고려한 가운데서 실습기관과 형태에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상실습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임상실습기관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가 32%를 차지하였고, 임상실습에서 통일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실습 기록지와 학생평가양식, 기준 성적 등이 있었다. 임상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적절한 호칭으로는 ~선생이 54%, ~실습학생이 42%를 나타냈다.

작업치료(학)과 학생 임상실습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데 그치지 않고, 실무과정 중심으로 일정기간 실습하는 것이다. 실습과 훈련을 통한 학생들 마음과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대학의 작업

치료교육 목표를 잘 이해하여 훌륭한 전문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과 임상 기관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며, 또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과 실습평가 방법, 현장실습비용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실습지도자의 자격과 경험 정도를 바탕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습지도의 방법 및 형식에 대한 실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하고 유용한 실습지도 형태 및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교 교육의 이론과 임상실습기관의 실습 경험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실습에서 경험되어야 할 영역 및 목적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임상실습의 결과가 국가시험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임상실습은 치료사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치료 현장에 나아가 치료사로서 자기의 적성과 능력을 재확인하고, 자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새롭게 하고, 치료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첫 출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학)과 임상실습의 문제점 및 평가를 통한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전임강사 이상인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과 임상 기관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과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 평가 방법, 현장실습비용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통일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임상실습 지침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혜숙. (2002).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6(1), 64-76.
- 박미정. (1999). *지역사회복지관의 실습지도과정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 박용현. (1988). *사회사업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수퍼비전의 이해와 실습평가방법 및 면접기술에 대한 소고*. 경기대 한국사회복지논총.
- 조인경. (1993). *교사들이 인식한 유치원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역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허혜경, 양미자. (2001). 유아특수교육 실습실태조사와 개선방향. *특수교육학연구*, 36(2), 149-163.

Abstract

The Survey o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Therapy Faculty on the Clinical Fieldwork

Kim, Jin-Kyung, M.S., O.T., Kang, Dae-Hyuk, M.Sc., O.T.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Hanseo University

Objectiv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ors on the current clinical fieldwork situations which may guide the development of clinical fieldwork curricula.

Methods : A close-ended self-reporting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and distributed to 32 occupational therapy educators who were attending National Occupational Therapy Faculty Conference in August 2003. 26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fter the conference. Descriptive statistics was employed in analyzing data.

Results : 43%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did not have an objective criteria for choosing fieldwork places. 24% respond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the fieldwork education. 46% of the respondents felt that there were lack of cooperation between occupational therapy schools and fieldwork places due to indifference of fieldwork supervisors(40%) and lack of efforts and interests of the faculty(18%). 32% of the respondents suggested that the environment of the fieldwork needed to be improved. The response to the question on the areas to be unified was student evaluation form(41%), fieldwork report form(38%), and grading system(17%) in order. 54% of the respondents agreed with the idea that the students should always be called with an appropriate title in a polite way.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it can be inferred that the close and systematic cooperation between occupational therapy schools and fieldwork places is needed to assure the quality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And the clinical fieldwork should be incorporated into occupational therapy curricula as a major part.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it is recommended that a uniform clinical fieldwork guideline be developed by an appropriate authority as soon as possible.

Key Words : Clinical fieldwork, Educator, Fieldwork guideline, Fieldwork places.